

천년목사고을 시간이 멈춘 곳, 나도 멈춘다



1977년까지 쌀, 소금, 흥어 등을 싣고 영산강 물길을 오가던 황포돛배들이 이제는 나주의 역사를 만나려는 사람들과 옛 추억을 싣고 분주히 움직인다.

〈사진제공=나주시〉

투어버스 코스로 떠나 본 역사여행

나주 한 해가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다. 고운 단풍으로 물들었던 산과 들만이 겨울 빛을 띄우며 2015년과의 작별을 준비하고 있다. 수많은 계절이 지나간 역사의 고을에서 겨울 여행을 하며 고요하게 한 해를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2000년의 시간이 머물고 있는 나주로 떠나는 '역사 여행'이다.

12:10 나주읍성

전주와 나주의 머리글자를 딴 전라도. 나주쪽은 전라남도를 관할하는 중심 고을이었다. '천년목사고을'로 불리던 나주는 너른 평야와 넉넉한 인심으로 무장한 명품 역사 문화도시다.

나주 관아가 있던 읍성권에는 4대문과 3.7km가 넘는 길이의 읍성이 복원되어 있다. 금성관의 위용도 느낄 수 있다. 나주목의 객사(客舍)였던 금성관은 사신과 중앙관들의 숙소로 이용됐던 곳이다.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객사는 나주가 유일하다. 나주 향교에서는 단아한 한국의 건축미를 느낄 수 있다. 향교를 에워싼 소박한 담장을 따라 기와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걸음을 하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대성전 앞에는 500년 된 은행나무가 나주향교의 역사를 간직하고 서있다. 나주 일대를 관장하는 목사의 살림집으로 사용됐던 목사내아는 한옥 숙박을 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바뀌었다. '금학헌'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옛 목사내아는 하룻밤 묵고 나면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문의: <http://moksanaea.naju.go.kr>)

14:30 황포돛배

바닷물이 영산강 물길을 따라 오르내리던 시절이 있었다. 쌀, 소금, 흥어 등을 싣고 분주하게 오가던 돛배들. 황포로 물들인 돛을 단 황포돛배가 수놓던 영산강 물길은 육로교통의 발달과 함께 추억의 길이 됐다. 상류에 댐이 들어서고 영산강 하구둑이 만들어지면서 1977년 마지막 배가 이곳을 떠났다. 이제는 나주의 역사를 만나려는 사람들과 옛 추억을 싣고 황포돛배가 영산강 물길을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다. 옛 목선을 그대로 재현한 빛가람 1호와 2호, 한옥 지붕이 멋스러운 나주호, 발굴된 고려시대 벼조각을 복원해놓은 왕건호, 빠르게 물살을 가르는 영산강호까지 황포돛배 투어가 풍성하다. 해설사의 구수한 설명을 들으며 아름다운 풍광을 훑다보면 수많은 이야기와 추억이 함께 흘러간다.

(문의: 061-332-1755)

15:30 한국 천연 염색 박물관

한국 천연 염색 박물관에서 나만의 색을 만들어보자. 나주는 예로부터 비단을 직조하고 쪽을 염색하는 기술이 발달한 곳이다. 영산강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리적 환경 탓에 쪽과 뽕나무를 재배하기에 좋았던 게 큰 이유다. 중요무형문화재 염색장 기능보유자도 활동하고 있다. 천연염색박물관에는 전시관과 200명이 동시에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체험관과 세미나실, 연구실 등이 갖춰져 있다. 우수 업체의 천연 염색 상품을 전시·판매하고 있는 '천연염색 공방'도 있다. 화색, 노랑, 분홍, 황토색 등 취향에 따라 천연염료를 가지고 활자기를 하고 핸드 페인팅을 하면서 고운 색에 취해본다.

(문의: 061-335-0091, <http://www.naturaldyeing.or.kr>)



북암리 고분군.

16:40 국립박물관·반남 고분군

영산포에서 영암 방면으로 3km로 정도를 달리다 보면 탁 트인 들판 한가운데 솟아있는 큰 무덤들이 눈에 띈다. 이곳이 바로 반남 고분군이다. 자미산(98m)을 중심으로 신촌리, 대안리, 덕사리의 낮은 구릉지에 위치한 반남 고분군에는 대형옹관고분 수십기가 분포하고 있다. 대형옹관고분은 지상에 분구를 쌓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한 커다란 옹(甕)을 매장하는 방식으로 영산강 유역 고대 사회의 독특한 고분 양식으로 꼽힌다. 지배계층의 무덤인 대형옹관고분은 나주 반남 일대는 물론 영암, 함평, 무안 등 영산강을 따라 형성되고 있다. 북암리 고분군에서도 이런 거대한 고분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금동신발, 큰칼, 구슬, 토기 등 많은 부장품이 쏟아져 나왔다. 신촌리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국보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의 생생한 역사를 만나고 싶다면 반남군 고분로에 위치한 국립나주박물관으로 걸음을 옮기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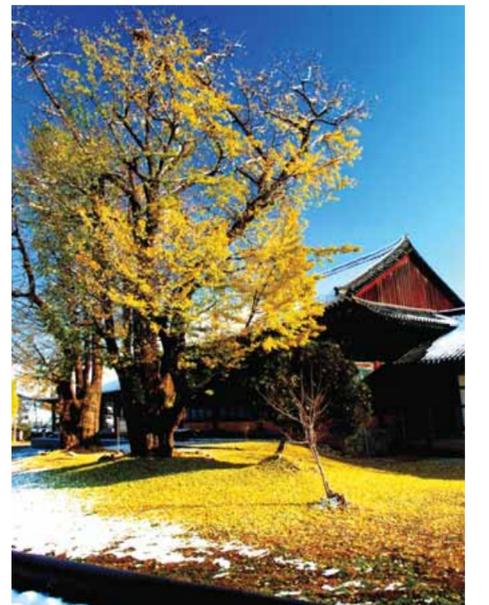
(문의: 061-330-7800, <http://naju.museum.go.kr>)

영상테마파크·불회사도 꼭 보세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어 내려다보는 영산강의 풍경은 어떨까? 드라마 '주몽'의 촬영지로 유명한 나주 영상테마파크는 나주 최고의 전망대로 꼽히는 곳이다. 공산면 신곡리 산자락에 위치한 테마파크의 고구려궁 맞은 편에 있는 성루가 명당이다. 성루에 올라서면 S자로 굽어쳐 유유히 흘러가는 영산강이 눈에 안긴다. 넓게 펼쳐진 다야들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다. 나주영상테마파크는 고구려의 건국 역사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영상 전문 테마공원으로 그동안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갈 정도로 입소문이 났다. 4만5000평 너른 공간에 옛 시대를 재현한 세트장이 촘촘하게 자리 잡고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고구려의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역사의 공간이다.

(문의: 061-335-7008, <http://themapark.naju.go.kr>)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덕룡산에 안겨있는 불회사도 역사 여행지로 빼놓을 수 없다. 어귀의 돌장승과 아름다운 대웅전에 걸



금성관 은행나무.

러 걸음을 하게 되는 불회사는 봄에는 대웅전 뒤편의 측백숲에서 퍼지는 봄기운에 취하고, 여름철에는 비자나무와 측백나무 숲의 상쾌함에 끌리는 곳이다. 불회사 주위를 둘러싼 전나무, 삼나무, 비자나무 등의 숲은 아늑한 분위기를 이루며 가장 늦게까지 단풍 빛을 머금고 있어 나주호와 더불어 관광지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 창건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기록이 전해진다. 384년(질무왕 1)에 인도승 마라난타가 창건하고 681년(신라왕 1)에 왕명으로 증창되었다고도 한다. 불회사 입구를 두고 양쪽으로 등산로가 나 있어서 반나절을 잡아 산세를 느끼기에도 좋다.

(문의: 061-337-3440, <http://www.bulhoesa.org>)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경주일보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新팔도유람은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 1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